



Artist News Clippings

SOLUNA
FINE ART



Seungtaik Jang | b. 1959 in Goyang, Korea

SOLUNA
FINE ART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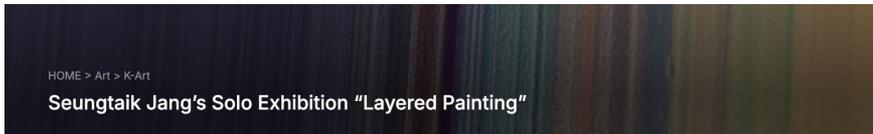
English

- **SayArt** (15 May 2025)

Korean

- 국제신문 (14 Nov 2010)
- **Art in Culture** (4 May 2016)
- **ARTKOREA TV** (8 May 2021)
- 월간중앙 (22 Nov 2024)
- 한국경제신문 (16 April 2025)
- 문화저널코리아 (23 August 2025)

**Please note: next pages ordered by date of release, from EN to KR.*



By Maria Kim

May 15, 2025 © 10 Month ago

Painting Layers of Light and Time — at Hakgojae Gallery Until May 31



[Sayart = Maria Kim] Seungtaik Jang, a prominent figure in Korean abstract art, presents his solo exhibition Layered Painting at Hakgojae Gallery in Seoul through May 31. The exhibition showcases his renowned "Layered Painting" series, exploring new dimensions of painting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olor, time, and sensory perception.

Born in 1959, Jang has developed a unique visual language within the trajectory of Korean abstract art. Moving beyond traditional painting materials, he employs unconventional media such as air spray, resin, and glass to create experimental color field abstractions. Using brushes over one meter in width, he applies bold strokes and layers various colors repeatedly. This process of overlapping brushwork and color imbues the canvas with depth and temporality, visualizing layers of emotion, memory, and time.

The exhibition features large-scale paintings created between 2022 and 2024, including notable works such as Layered Painting 150-21 (2022, 220x170cm), Layered Painting 130-46 (2024, 200x150cm), and Layered Painting 100-97 (2023, 160x130cm), all executed in acrylic on canvas. These works experiment with visual rhythm and spatial perception through repeated brushstrokes and transparent layers, offering viewers an experience of visualizing layers of emotion, memory, and time.

Jang states, "I aim to capture the flow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moments, rather than depicting a single instant." His work functions not merely as physical layering but as a device to visualize the stratification of emotion, memory, and time. Through repeated brushwork and color layering, he imparts depth and temporality to the canvas, visualizing layers of emotion, memory, and time.

Hakgojae Gallery, established in 1988, has been a leading institution in Korean contemporary art, bridging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This solo exhibition by Seungtaik Jang offer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abstract art.

Exhibition Details

Title: Layered Painting

Artist: Seungtaik Jang

Dates: Until May 31, 2025

Venue: Hakgojae Gallery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Hours: Tuesday-Sunday, 10 AM – 6 PM (Closed on Mondays)

Contact: info@hakgojae.com / +82-2-720-15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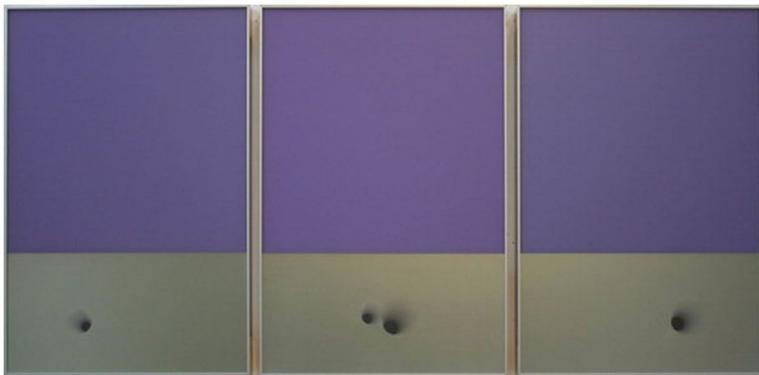


붓·캔버스 버리고 '빛과 색' 탐미

장승택 두번째 부산 개인전

전통적 회화 방식 벗어난 실험적 '트랜스페인팅' 선택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입력 : 2010-11-14 19:52:59 | 본지 21면



트랜스페인팅(Trans-Painting)이란 새로운 미술 세계를 개척해 가고 있는 장승택 작가의 작품. 갤러리 데이트 제공

붓과 캔버스를 벗어난 회화는, 회화인가? 장승택은 붓과 캔버스를 떠난 지 오래다. 회화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서구 모더니즘의 논리라면 그의 회화는 회화가 아닐 것이다. 빛과 색의 물질적 표현이 회화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회화는 분명, 회화다.

붓을 떠나 다양한 재료로 실험을 거듭하는 장승택은 1989년 파리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물감안료를 통해 다 다른 빛의 세계와 움직임에 스며든 정신을 탐구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첫 개인전 후 5년간 장승택의 물질에 대한 탐구는 절정에 달한다. 캔버스 표면 위 물감이 가지는 물질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는 오일, 왁스, 파라핀, 합성수지, 소금, 그을음 등 회화작가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료들을 이용해 다양한 물성에 대한 실험을 해 왔다.

그가 부산에서의 두 번째 전시회를 해운대구 중동 갤러리 데이트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 새롭게 시도된 작품 세계는 트랜스페인팅(Trans-Painting)이다. 유리라는 재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하고 (transparent), 방법상에서 단위 작품들을 조합해 회화 형태를 변형(translate)한다는 의미로 트랜스페인팅이라 이름 붙였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변화하는', '넘어서는'이라는 뜻의 'trans-'와 그림을 뜻하는 'painting'을 합쳐, 붓과 캔버스를 사용하는 전통적 회화를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회화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작업방식도 특이하다. 두께가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색칠한 반투명 강화 유리를 얹거나, 유리 위에 여러 겹의 폴리에스테르필름을 얹고 일정 공간을 띄운 후, 색을 칠한 포맥스 패널(간판이나 홍보물 등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 뒷면을 막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색채의 면과 공간감으로 생긴 면으로 나누어지면서, 깊은 터널 혹은 블랙홀로 빨려드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일반 캔버스로는 맛볼 수 없는 오묘한 색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반투명 강화유리에 색을 칠하지 않고 강화유리 안쪽 테두리를 따라 채색해 마치 흰 면의 가장자리에서 색(또는 빛)이 은은하게 번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보는 방향이나 각도, 거리에 따라 색은 강화유리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관람자를 깊은 사색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이런 효과는 작가가 일정 정도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회화의 시각 틀 안에서 빛과 반응하는 색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기에 가능하다. 그를 두고 '빛과 색을 탐구해온 작가'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달 4일까지 전시. (051)758-9845



장승택展

‘연금술’로 피어나는 색면회화

장승택展 4. 5~5. 4 갤러리데이트(<http://gallery-date.com/>)

부산 갤러리데이트에서 단색화 2세대 대표작가 장승택의 개인전 <색채들> (4. 5~5. 4)이 열렸다.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승택은 점 선 면 색 등 그림의 요소를 하나씩 분리하고 그중 한 요소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플렉시글라스 박스 위에 아크릴과 특수 혼합 안료를 섞은 물감을 에어브러시로 뿌려 제작한 회화 신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합성수지가 원료인 플렉시글라스를 자주 사용하는데, 네 개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하나의 오브제처럼 비치도록 했다. 박스 위로 물감을 수십 번에 걸쳐 살포하면서 서로 다른 색들이 여러 겹 쌓이는 형태로 제작한다. 그 결과 정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단색화처럼 보이지만, 옆면에서 봤을 때는 투명한 ‘색채들’이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가 고안한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세 차례의 제작 과정을 거친다. 첫째, 점액질의 물감을 희석하는 ‘액화과정’. 둘째, 그 액체의 ‘기화과정’. 셋째, 플렉시글라스에 뿌려진 입자들이 가라앉으면서 굳어지는 ‘고체화과정’이다. 동일한 재료가 액체 기체 고체의 형태를 넘나들며 작품으로 완성돼 가는 과정은연금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작가는 “빛과 색채는 회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만, 나의 작업에 있어서 그것들은 반투명한 매체와 함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증식하는 투명한 색채와 빛의 순환으로 구체화된 물성을 통해 정신이 드러난다. 그것이 내 작업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장승택은 서울에서 연 개인전을 계기로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정 재료의 물질성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중성적인 공간’과 ‘의식의 투명성’을 주제로 작업을 선보였는데 전자는 회화의 재현성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을, 후자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회화작업이다. 이후 1994~95년 동안 레진의 특성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1998년 이후부터는 박스 형태의 작업을 선보였다. 25년 이상 전업화가로 활동해 온 작가는 단색화 2세대 중에서도 붓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미술평단의 이목을 끌었다. 작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지 플라스틱 유리 등 비전통적인 매체를 회화작업에 적극 사용, 새로운 개념의 추상회화를 실험하면서 자연주의적인 경향의 1세대 회화와는 또 다른 지평에 서있다고 평가받는다. 평론가 에릭 수체어(Eric Suchère)는 “장승택은 결코 작품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다. 차분한 외형을 하고 있음에도 그의 작품이 결코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작품이 현대적 의미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평했다. 또 평론가 윤진섭은 장승택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단색화 2세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 갤러리분도에서도 개인전 <色들>(4. 4~30)이 열려 많은 관객에게 장승택의 회화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장승택은 1959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홍익대 서양화과 및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프랑스 알베르샤노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갤러리분도(2016), P&C갤러리(2013), 갤러리스케이프(2012) 등에서 개인전을 20여 회 개최했다. <텃빈 충만: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갤러리세줄 2014), <색전>(일우스페이스 2013),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2)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작가는 현재 경기도 포천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발히 작업 중이다.



장승택 <색채들> 전 전시 전경 2016 갤러리데이트_작가는 반투명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시트를 포갠 플렉시글라스 위에 물감을 덧바른다. 여러 장의 플렉시글라스가 쌓이면서 회화의 단층이 생겨난다.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 김한정 기자 | ⓒ 입력 2021.05.08 01:00 | Ⓜ 수정 2021.05.09 10:55 | 🔍 댓글 0 | 📄 조회수 3502

[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73에 위치한 예화랑에서는 2021년 5월 6일~6월 5일까지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을 전시 중인 가운데 5월 6일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예화랑을 가는 길의 교통체증으로 오전 11시가 좀 넘어 전시장에 도착하니 예화랑, 김방은 대표가 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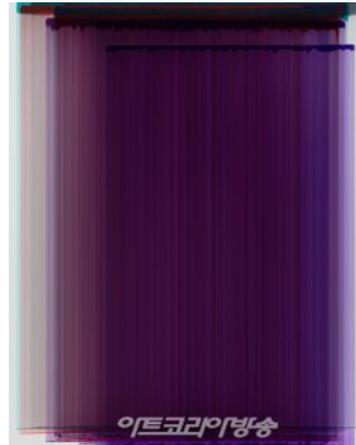
장승택의 “겹 회화”

반 고흐의 빛이 한 여름 정오의 빛이라면 나의 빛은 대지와 맞닿은 새벽녘 하늘빛이며, 일식 때의 태양 언저리의 빛이며, 성숙하지 않은 소녀의 길지 않은 가운데 손톱의 투명한 빛이다. 빛과 색채는 회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지만 나의 작업에 있어서 그것들은 반투명한 매체와 함께 절대적 요소가 된다. 증식된 투명한 색채와 빛의 순환에 의한 물성의 구체화를 통한 정신의 드러냄이 내 작업의 진정한 의미라 하겠다.

빛에는 감각적인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지성을 함께 포괄한다. 즉 생명, 죽음,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빛은 일상에서 보여 지는 평범한 빛이기도 하고 회화를 통해 전개되는 특수한 빛이기도 하다. 형태 안에서 섬광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빛은 현실을 사로잡는다.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우리는 색채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물질을 부여하는, 즉 육체를 부여하는 물체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색채는 빛에 의해서 생성되며 사물의 표면 위에서 본체를 갖는다.

장승택의 신작 "겹 회화" 시리즈는 기존의 "Poly Painting" 시리즈의 연장선 안에 있는 개념의 작업으로 색채의 단층들이 만들어 내는 색면 회화이다.

나는 30여 년간 붓을 떠난 회화를 해왔다. 정말 오랜만에 붓을 다시 들었다. 회화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인 붓은 작가의 작은 손 움직임만으로도 너무 많은 궤적을 남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몸을 움직였다. 큰 일획!

"겹 회화" 작업은 특별히 제작된 대형 붓으로 아크릴물감과 특수미디어를 섞은 안료를 수십 회 매번 다른 색으로 투명하게 채색하고 건조를 반복하여 완성한다.

흰 여백, 색, 농도, 색면 폭의 감각적 선택, 무수히 반복되는 단순한 몸짓 후에 드러나는 거대한 색채의 환영..

어둠이 내리면 색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2019.10.08 장승택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곧이어 1, 2, 3층 장승택 작가의 전시를 스케치한 다음 김 대표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Q. 김한정 기자

A. 김방은 예화랑 대표

Q.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네! 이번 전시는 장승택이라는 미니멀 리얼에 컬러를 아름답게 쓰시는 작가분이세요.

이번 전시 제목은 '레이어드'인데요.

“겹 회화 Layered Painting”,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컬러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저걸 어떻게 그렸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작업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붓을, 여러 붓을 이렇게 쪽 이어가지고 선생님만의 붓을 제작해서 그 붓을 캔버스에 쪽 내리 그어서 작품을 완성하시거든요.

보시면 컬러와 미니멀 계열의 컬러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장승업 작가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셨나요?

A. 장승업 선생님과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어요. 저희와 22년 전부터 선생님과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레이어드' 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전시가 1, 2, 3층으로 이어지나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작업이 있고요.

3층에는 유리에 아크릴릭으로 하신 작품이 있으세요.

Q. 장 선생님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이라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A. 지금 사실 페인팅이 하나의 시리즈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작품이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모든 시리즈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하나 작품마다 각기 다른 컬러의 매력들이 있는 거죠.

Q. 관람자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볼 수 있다. 팁을 주신다면?

A. 사실 추상회화이기 때문에 추상회화는 어떤 거를 그렸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추상회화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뭐 자연을 보러 여행을 간 다던가 이럴 때도 짝 펼쳐지는 풍경을 하나의 이렇게 메모리로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풍경을 컬러로 메모리로 기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감상해주시면 좋습니다.



Q. 예화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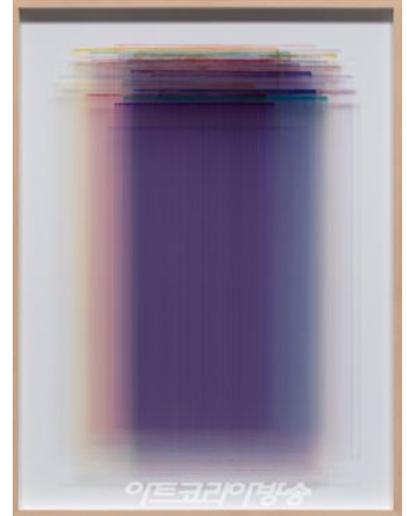
A. 저희 갤러리는 역사가 대략 43년이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 대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11년이 됐는데, 이제 사실 저도 그 원래 가지고 내려왔던 43년 동안 쪽 내려왔던 역사성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해요. 이번 장승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로 쪽 이어오면서 미니멀 계통, 단색화 계통으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Q. 앞으로도 좋은 전시 계속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장승택 개인전 '겹 회화 Layered Painting'



문화

감각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내면의 색이 드러난다



조정화 미술평론가

입력 2024.11.22 15:17 | 수정 2025.07.04 09:06 | 호수 202412 | 204면

[JOA의 핫피플 & 아트(30)] 단색화 계보 있는 추상미술의 대가, 장승택

**전통 회화 방식 떠나 소재·방식 틀 깨고 실험 정신 돋보여
박서보, 이우환 등 단색화 1세대의 전통에 자유분방 더해**

“반고흐의 빛이 한여름 정오의 빛이라면, 나의 빛은 대지와 맞닿은 새벽녘 하늘빛이며, 일식 때 태양 언저리의 빛이며, 소녀의 길지 않은 손톱의 투명한 빛이다. 증식된 투명한 색채와 빛의 순환에 의한 물성의 구체화를 통해 정신을 드러냄이 내 작업의 진정한 의미다.”

장승택(65)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지난 30여 년 붓과 캔버스를 떠나 롤러, 에어브러시 등을 사용하거나 유리, 플라스틱 등 중성적이고 산업적인 여러 매체를 회화 영역으로 끌어와 일관되게 확장해 왔다. 이는 1989년 파리에서의 첫 전시와 1990년 한국에서 개최된 첫 개인전을 통해 예견되었으며, 프랑스 평론가 장 루이 페리에(Jean-Louis Ferrier)의 서문 ‘물질에 있어서의 정신’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작가들은 작품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생 한 가지만 유지하거나, 몇 차례 변화를 갖기도 한다. 장승택은 매체에 대한 양식적 변화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기 드문 작가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떠나 왁스, 파라핀, 레진, 촛불 그늘음 등 다양한 재료로 물성에 대한 실험을 해왔다. 왁스 페인팅(Wax-Painting), 폴리 페인팅(Poly Painting), 트랜스 페인팅(Trans-Painting), 이 3가지 기법 유형이 작품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몇 년 단위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수십 번의 투명 덧칠로 ‘겹 회화’ 완성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형상은 있으나 구상은 아닌, 거의 반 추상 작업을 작업 초기부터 선보였다. 점차 회화를 구성하는 빛과 색채 외에도 반투명 매체가 그림의 절대적인 요소로 추상성을 자리매김한다. 2015년 이후 지난한 물성 탐구의 시기를 거쳐, 최근의 연작 ‘겹 회화(Layered Painting)’는 특별히 제작한 1.4m 대형 붓으로 아크릴 물감과 특수 미디엄을 섞은 안료를 수십 회 매번 다른 색으로 투명하게 채색하고, 건조를 반복하여 색채가 단층을 이루는 겹 회화를 완성했다.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의 중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색과 공간에 의한 모호한 중성적인 ‘겹’은 양식만 바뀐 대 부분의 연작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승택은 색과 형상의 절제미를 통한 회화적 수사(rhetoric)로 작가만의 고유한 ‘색면추상’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제1세대 자연주의 단색화와는 또 다른 철학적·양식적 차별성이 혁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단색화에 가까운 추상표 현주의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추상미술의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

일찍 화가의 꿈을 키우며 전업 작가의 길을 걸어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쯤 장래 희망이 화가였을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고 많이 그렸다. 그런데 중학교 때 성당의 복사와 성가대를 하면서 ‘신부’가 될까 ‘화가’가 될까 잠시 고민했는데, 미술이 제일 좋더라. 고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룻밤에 200~300장 씩 각기 다르게 그렸는데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채화가 좀 약하다 싶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미술학원을 처음 다녔고, 이후 홍익대를 들어갔는데 일요일도 학교에 갈 정도로 그리는 게 좋았다. 졸업 후 파리로 유학을 갔다 돌아와 전업 작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환경이 어떻게 간에 철저하게 미술을 먼저 생각했다.”



캔버스 대신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에 작업

여러 매체를 회화 영역으로 끌어와 계속 탐구해 온 이유는?

“일단, 독창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가장 적절한 매체를 찾는 게 중요해서다. 가장 일차적인 것은 콘셉트이고, 매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은 싫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중성적이고, 공업·산업적인 매체들을 끌어들이게 됐다. 폴리 페인팅, 트랜스 페인팅 등 유리 위에 작업한다든가 플라스틱 위에 작업한다든가. 캔버스조차 없는 그림을 오랜 기간 시도했다. 지금도 아크릴로 하지만 거의 필름을 겹겹이 입힌 듯한 비주얼이 된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최근 연작 ‘겹 회화’에 대해 궁금하다.

“기존 ‘Poly Painting’ 연작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의 작업이다. 색채의 단층들이 만들어 내는 색면회화다.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붓은 작가의 작은 손 움직임만으로도 너무 많은 궤적을 남긴다. 이번 작품은 큰 일획으로 최소한의 몸을 움직여 완성 된다. 흰 여백, 색, 농도, 색면 폭의 감각적 선택, 무수히 반복되는 단순한 몸짓 후에 드러나는 거대한 색 채의 환영. 색채는 빛에 의해서 생성되며 사물의 표면 위에서 본체를 갖는다. 빛에는 감각적인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지성을 포괄한다. 일상에서 보이는 평범한 빛이기도 하고 회화를 통해 전개되는 특수한 빛이기도 하다.”

‘겹 회화’에 사용하는 미술 도구를 제작해 사용한다.

“캔버스 면적에 따라 붓을 주문 제작해 사용한다. 제일 큰 붓은 1m 40cm이다. 사이즈별로 45개 정도 제작해 놓고 번갈아 쓴다. 붓 너비가 길어 팔레트도 폭은 좁지만 길이는 길게, 여러 사이즈로 주문 제작해 쓰고 있다. 얇고 투명하면서 섬세한 색 표현을 위해 일반적인 캔버스는 쓰지 않는다. 실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고온 실크 스크린용 프레임용 캔버스화 해 사용한다. 대형 붓에 물감을 묻혀 꼭 눌렀다가 쪽욱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초대형 붓은 그만큼 다루기 힘들 것 같다. 일획이 중요한가?

“일획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획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많은 화가들이 액션에 가까운 걸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기운생동(氣韻生動)을 하자는 게 아니다. 하나의 고른 면을 코팅하듯이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단정한 획을 원한다. 작가들이 붓을 가지고 서예에서 오는 에너지나 ‘기(氣)’ 이런 것을 중요시하며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붓을 쓰지만 좀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다. 작가의 표현력이 많이 들어가는 표현 방식보다는 절제된 방식이 물감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뭐랄까 물감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맛이 좋다.”

‘겹 회화’ 색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색을 칠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 색으로 직접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과 안색한 테크닉 두 가지만 생각한다. 오로지 회화 자체만 집중하는 편이다. 한 작품에서 20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한다. 여러 번 칠하기 때문에 깊이는 있지만 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투명도를 많이 신경 쓴다. 반투명한 공간감을 갖기 위해 특히 물감의 투명도가 중요하다. 시작할 때 무슨 색조로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만, 대개는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색을 선택한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 또한 제일 재미도 있다.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개념이 섰을 때는 형식은 철저하고 반복적이어서 되지만 색채의 선택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대형 붓으로 코팅하듯 한 획에 집중

‘겹 회화’ 작품은 색뿐 아니라 공간감도 돋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느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현실에서 잘 없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만들어보고 싶었다. 작가들은 자연 아니면 전통 회화 작가에게 대개 영향을 받는다. 나 역시 자연에서 영향을 받고 작용도 하지만 그런 것을 재현하고 싶거나 그것에서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심리적인 것, 감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등 복합적이다. ‘레이어’라는 공간감을 만들고 싶은데 좀 더 너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싶었다.”



“반복된 작업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

크고 작은, 우리나라 단색화 2세대를 묶어 단체전을 할 때 그 범주 안에서 자주 작품을 보게 된다.

“단색화 1세대인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하종현 등은 정말 좋은 작업을 했다.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업에 대한 태도나 철학 등이 확고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관념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색화 2세대는 개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다른 면이 있다. 특히 나의 경우는 자연주의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단색화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태도나 모양새가 그분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있다.”

특히, 단색화 1세대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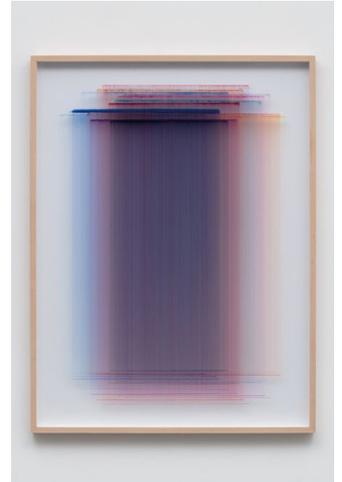
“그분들은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반복’과 ‘수양’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복을 하지만 수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작업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일 뿐, 작업을 하면서 내가 수양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유희성도 있다고 해야 하나. 삶에서 무엇이 자유로워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사진 한 장이 있다면?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없다. 5형제 모두 백일이나 돌사진 한장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까까 머리 중학교 시절, 겨울방학 즈음 성당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유년기에 많은 시간을 성당에서 보냈다. 그 시절 착하고, 천사 같은 모범 복사, 성당 오빠였다(웃음). 모태신앙이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당에서 전례 복사를 7년 했다. 성당 바로 앞에 살아서, 갑자기 복사할 사람이 안 오면 나를 데리러 올 정도였다. 10년 전 타고 있던 차가 다리 밑으로 전복됐는데 전혀 다친 곳이 없어 그 덕분인가 했다. 성당 테두리 안에서 참 맑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다.”



장승익의 박서보, 이우환 등 이후로 이루어지는 한국 단색화 2세대의 단색화 1세대와 2세대가 대립 주체다. (사진: 오종환)



Lined Painting C 01 14, 122 x 150cm, acrylic on glass, 2022. 장승익의 작품은 부엌에 차를 달고 풍속화 단색화 2세대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진다.



성당에서 주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장승익에게 가장 맑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중학생 시절 성당에서 찍은 사진(오빠)이 장승익을 가장 기억에 남은 인생 사진으로 꼽는다.



색채로 쌓아낸 삶의 깊이...장승택 개인전 '거의 푸르른'

서울 소격동 학교재갤러리서

5월 17일까지

형태 없이 색(色)만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색면(色面) 회화의 거장 마크 로스코와 자신만의 푸른색을 개발한 이브 클라인에서부터 한국의 단색화가들까지, 수많은 현대미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 질문에 저마다의 답을 내놨다. 장승택(66·사진)도 그 중 하나다.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그는 여러 색을 층층이 쌓아 그린 ‘겹 회화’로 인기가 높은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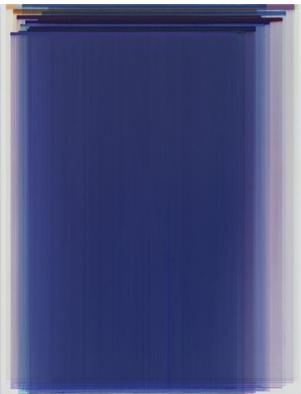
장승택이라는 이름 뒤에는 ‘단색화 2세대’라는 말이 종종 따라붙곤 한다. 멀리서 봤을 때 작품이 단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십 가지의 색이 담겨 있다. 특수 제작한 대형 붓으로 가지런히 색을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한 결과물이다. 찰나가 쌓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겹쳐 쌓은 색을 통해 삶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작가의 의도다. “내 작품을 단색화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작가가 말하는 이유다.

살아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도 직접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화면으로는 여러 겹친 색들의 은은한 조화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 소격동 학교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거의 푸르른’은 장승택의 작품 여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4년 만의 개인전이다. 전시장에는 그의 신작 20여점이 걸려 있다. 전시 제목처럼 푸른색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멸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런 우울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투명 플라스틱 위에 그렸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캔버스에 그려낸 색채들이 색다른 매력을 뽐낸다. 전시는 5월 17일까지.



장승택 작가.



'겹 회화 150-24'(2024).



롯데백화점, 와인과 예술의 만남... 장승택 개인전 'Layered: 겹' 개최

오형석 yonsef682@gmail.com | 등록 2025.08.23 08:38:02



문화저널코리아 오형석 기자 | 롯데백화점은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 에비뉴 엘 6F 아트홀에서 장승택 작가의 개인전 'Layered: 겹'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과 와인을 접목한 롯데백화점의 '아트 스페셜 에디션 와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 '토마시 아마로네'와 색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장승택 작가가 만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장승택 작가가 2019년부터 펼치고 있는 '겹화(Layered Painting)'의 여정을 따라간다. 대형 붓으로 얇고 투명한 색채를 수십 겹 쌓아 올리는 그의 작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색과 안에 숨겨진 색이 빛을 통해 중첩되며 완성되는 시각적 연금술로 평가받고 있다. 반복되는 붓질과 기다림을 통해 축적된 색의 층위는 물질과 시간의 밀도를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장승택의 겹화 초기작품을 비롯해 대표 겹화 작품 14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직접 제작한 붓과 틀 등 작업 도구를 비치, 작품 제작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는 작업실 공간을 구현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나만의 겹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스탬프 체험 공간도 마련돼있다.

이번 전시는 롯데백화점이 2023년 부터 추진해 온 '아트 스페셜 에디션 와인'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로, 2023년 박선기 작가와 바롤로 와인, 2024년 김한기 작가와 돈멜초 와인에 이어 올해는 장승택 작가와 이탈리아 3대 명주로 꼽히는 아마로네 와인을 매칭했다. 포도를 약 100일간 건조해 당분과 향을 응축시키는 '아파시멘토(Appassimento)'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아마로네 와인은 색채의 중첩과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는 장승택의 겹화와 닮아있다.

장승택 작가의 대표 겹화 작품이 입혀진 토마시 아마로네 아트 스페셜 에디션 와인은 3000병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었으며, 전국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축적과 응축, 시간의 기다림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회화와 와인이 예술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프리즈 서울 기간과 맞물려 글로벌 미술 관람객에게 한국 현대미술의 깊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End

SOLUNA
FINE ART